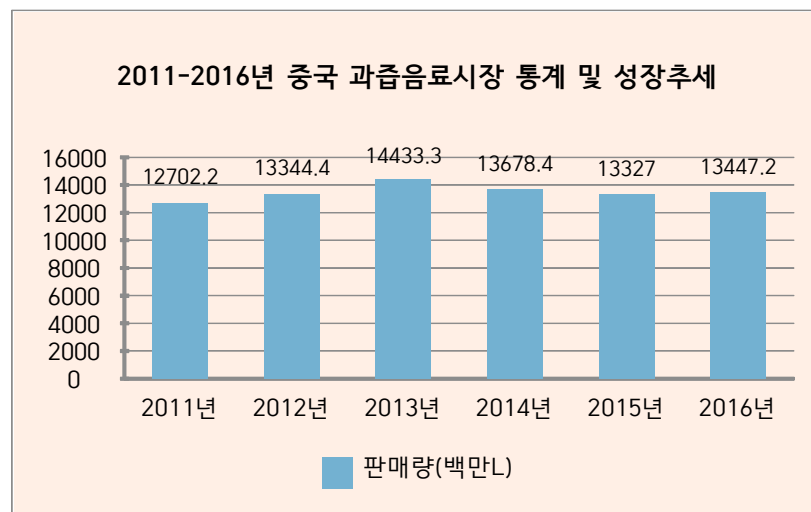


중국 과즙음료 시장현황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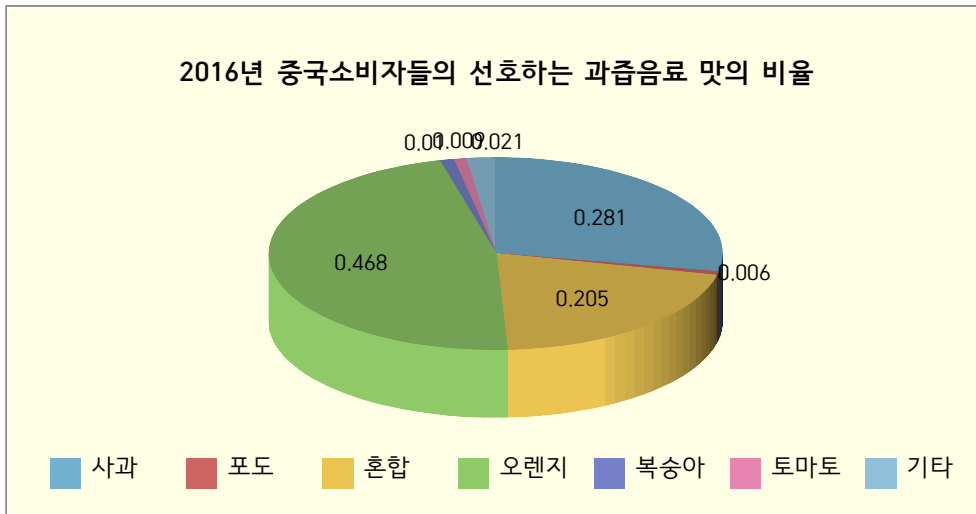
가. 중국 과즙음료 시장현황

- 중국의 과즙음료 시장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2016년 중국 과즙음료시장의 판매량은 134.47억 리터이며, 판매액은 1009.14억 위안으로, 작년대비 1.88%가 성장하였다. 중국산업연구원은 2022년에는 중국 과즙 판매량은 192억 리터, 판매액은 15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 2016년 중국 과즙음료 시장에서는 저농도 과즙음료가 전체 판매량의 83.76%를 차지하였고, 중농도 과즙음료는 13.6%, 무첨가 천연 과즙음료는 3.18%를 차지하였다.
- 중국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즙음료의 맛은 오렌지, 사과와 혼합과일 세 가지 맛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국 과즙음료 시장에서 오렌지 맛 과즙음료의 매출액이 47.5%를 차지하며, 가장 선호하는 맛으로 밝혀졌다.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나. 중국 과즙음료 시장의 판매 현황

- 중국 과즙 음료 소비시장은 주로 광둥, 허난, 푸젠, 저장 등 연해 대도시 위주의 소비 수요 특성을 보이며, 안후이, 후난, 구이저우, 쓰촨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비 수요가 적은편이다.
- 다양한 과일이 생산되는 중국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제품군을 형성하며, 남방에는 코코넛맛 주스, 여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등이 있고, 북방에는 사과주스, 포도주스, 감 주스, 배 주스 등이 있다.

		
후이원 오렌지맛 음료 (중국시장점유율 1위)	코코넛맛 음료	Dole제품의 오렌지맛 음료

출처 : 바이두(百度)

- 최근 중국에서는 파인애플주스, 오렌지주스와 같은 과일주스에 각기 다른 야채를 섞은 혼합형 주스가 인기를 끌고 있고 있으며, 요오드 성분 강화주스, 식이섬유 강화주스, 기타 새로운 원료를 접목시킨 건강주스 등 다양한 기능성 과일주스가 중국 과즙음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 중국 과즙음료 시장의 전망 및 시사점

-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은 연간 1인당 99달러로 과즙음료 소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은 연간 1인당 소비액이 82달러였다. 중국 대륙 내 소비자들의 연간 1인당 소비액은 16달러로 중국과 음식습관이 비교적 비슷한 대만(연간 1인당 소비액 37달러) 보다 낮았다. 이를 통해 중국 과즙음료 시장의 잠재력은 아직 크다고 볼 수 있다.
- 중국은 과일 생산량 자체는 풍부하나, 주스용 과일의 생산량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며, 중국에서는 사과주스의 원료가 되는 사과의 산도가 낮아 그만큼 첨가물이 많아지게 되고, 건강보건 트렌드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이에 걸맞는 우수한 품질의 재료를 이용한 주스를 공급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그리하여 건강 관련제품에 눈을 뜨기 시작한 중국소비자들의 성향상 과즙음료 시장의 발전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진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국제상보(国际商报)

중상정보왕(国际商报)